

# 부정과 고대영어의 문장구조\*

이필환

(계명대학교)

Pil-Hwan, Lee. 2003. Negation and Old English Sentential Structur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1), 1-26. This is an analysis of Old English clausal struc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ntential negation in Old English.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underlying structure of OE is not uniformly head-final, partly accepting the double base hypothesis proposed by Pintzuk(1991, 1992, 1993) and revising the view in Kemenade(1987, 1997a, 1997b) and Lee Pil-Hwan(1992, 1993, 1995, 1999). OE exhibits synchronic variation in phrase structure: at least IP may be either head-final or head-initial. It is shown that evidence for variation in the underlying position of INFL is well supported. However, the V2 is still analyzed as involving the movement of a finite verb to C(exactly, to AGRc) and the topicalization into SPEC of CP, differing from Pintzuk's hypothesis. This assumption is necessary to account for the asymmetry in V2 between root and non-root clauses. It is also argued that Old English pronominal clitics are attached to C(or AGRc), not being substituted into SPEC of FP as in Kemenade(1999, 2000).

주제어(Key words): head-initial INFL, sentential negation, pronominal clitics, FP, negative concord, verb second

## 1.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영어 부정 표현의 변화와 영어의 어순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고대영어에서도 문장의 중간에 굴절소(medial-INFL(ction))가 있을 수 있다는 Pintzuk(1991, 1992, 1993, 1995, 1996a, 1996b, 1998)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왜 중간 굴절소가 필요한지 Pintzuk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부정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다. 이

---

\*본 논문을 읽고 필자의 부주의함과 부족함을 자세히 지적해주신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 논문의 부실은 전적으로 필자의 짧은 공부 탓입니다.

## 2 이필환

는 고대영어의 기저어순은 SOV의 단일 구조이고 따라서 문장 중간에는 굴절소가 전혀 없다는 Kemenade(1987, 1991, 1997a, b, c)의 주장과, 이를 바탕으로 고대영어의 어순을 논의했던 이필환(1995, 1999)의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다. 특히 이필환(1995)에서의 Pintzuk의 비판을 상당 부분 수정 보완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주장은 중간 굴절소를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Pintzuk이나 Haerberli and Haegeman(1995, 1999)의 주장과 동일하지만, V2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인칭대명사 접어(clitic)의 위치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르다. 즉 시제동사가 문장 중간의 굴절소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V2이동(verb second movement)은 아니며 시제동사가 보문자(Comp(lementizer))까지 이동하는 것을 V2이동으로 보고 있으며, 화제화이동(topicalization)도 여전히 CP의 지정어 자리로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주장이다. 또한 인칭대명사 접어를 보문자에 부가되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인칭대명사 접어는 FP의 지정어 자리로 삽입된다는 Kemenade(1999, 2000)의 분석과도 다르다. 즉 인칭대명사 접어만을 위한 별도의 XP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2. 고대영어의 문장구조

### 2.1. CV2분석

고대영어의 어순을 포함하여 통사 구조를 생성문법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Kemenade(1987, 1991)에 의하면 고대영어의 기저어순은 SOV이다. 그리고 이런 견해는 그 이후 어느 정도 정립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굴절소까지 고려한다면 SOVI가 되는데, 이런 어순은 종속절(non-root clause)에서 잘 나타난다:

- (1) gif hie ænigne feld *secan wolden*  
=if they any field *seek wanted-to*  
'if they wanted to seek out any open country' (Parker 894)

그러나 주절(root clause)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끝이 아닌 문장의 두 번째 위치에 오고 그 앞에는 주격주어 외의 다른 XP요소가 올 수 있다:

- (2) a. eall þis *aredaþ* se reccere swiþe ryhte.

=all this *arranges* the ruler very rightly.

'the ruler arranges all this very rightly' (CP 168.3)

[accusative object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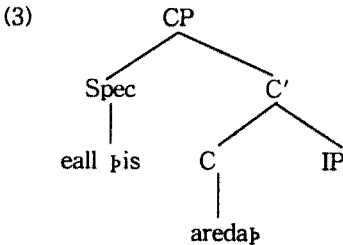
b. *þy ilcan geare drehton* þa hergas on East englum...

=the same year *harried* the armies in East Anglia...

'in the same year the armies harried east Anglia and...'

(Parker 895) [PP first]

시제동사는 보문자(Complementizer)의 위치로 소위 V2(Verb Second)이동을 하고, 또 CP의 지정어 자리로는 주어틀 포함하여 XP요소가 화제화이동(topicalization)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런 어순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다. 이를 CV2분석, 즉 V가 C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분석이라고 부른다(Kemenade 1997a, 1997b):



그리고 이런 어순 유형은 독일어나 화란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명의 가장 큰 장점은 위와 같은 V2구조가 주절에서만 나타나고 종속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속절에서는 보문자의 자리가 이미 어휘 보문자(혹은 종속 접속사)에 의해 차있기 때문에 시제동사가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CV2분석의 장 큰 장점은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비 대칭성(asymmetry)을 잘 설명하는 점이다.

## 2.2. IV2분석

고대영어를 SOV기저어순을 가진 CV2언어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고대영어의 어순이 전형적인 CV2언어인 독일어

4 이필환

나 화관어처럼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4)에서 보듯이, 종속절인데도 시제동사가 목적어의 앞에, 특히 주절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두 번째 위치에 오는 예가 있다:

- (4) þæt he *mehte* his feorh *generian*  
 =that he *might* his life *save*  
 ‘...so that he might save his life’ (Oros 48.18)

(4)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 Kemenade는 시제동사는 문장 끝의 원래 기저위치에 그대로 있고 대신, 예를 들어 [his feorh generian] 같은 동사구가 시제동사의 다음으로 동사(구) 인상(Verb (Projection) Raising)된 것으로 분석한다. 동사(구) 인상규칙은 비 굴절동사가 단독으로 혹은 그 보충어와 함께 굴절동사 다음으로 이동하는 문체상의 규칙으로 수의적으로 적용되며, 서부 게르만어인 독일어, 화관어(의 방언)에서 흔히 발견이 된다.

그러나 Pintzuk(1991, 1992, 1993)은, Kemenade와는 달리, 고대영어에서도 굴절소가 주어와 동사(구)의 사이에 선택어순(head-initial)으로 위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Subj. [INFL [VP ... ]]]의 기저 구조가 고대영어에서도 가능했었다는 주장이다. 굴절소의 위치가 시제동사의 표면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4)와 같은 예문은, Pintzuk의 설명에 따르면, 동사(구) 인상과 같은 이동규칙의 적용 없이 기저어순으로부터 바로 도출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Pintzuk도 고대영어의 모든 문장이 굴절소 중간구조에 의해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에서처럼 시제동사가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에는 굴절소가 후핵어순으로 [Subj. [VP ... ] INFL]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제동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더라도 그 앞에 오는 요소가 IP의 지정어에 위치할 수 있는 하나의 XP를 넘어서서 여러 개인 경우는 여전히 굴절소가 문장의 끝에 있고(그래서 시제동사는 문장 끝의 기저위치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오는 요소들이 동사(구) 인상이나 외치(extraposition) 등에 의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5) a. þe æfre on gefeohte his handa *wolde* [afylan]  
 =who ever in battle his hands *would* defile  
 ‘...who would ever defile his hands in battle...’ (ÆLS 25.858)  
 b. þæt he þæs gewinnes *mehte* [mare gefremman]

=that he the victory *could* better achieve  
 'that people could gain victory more easily' (Oros 47.14)

(5a)에서는 *afylan*이 시제동사 *wolde*의 다음으로 동사 인상된 것이다. 그리고 (5b)에서도 *mehte*는 중간의 굴절소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5a)나 (5b)에서 굴절동사의 앞에 오는 요소가 하나의 XP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b)에서는 *he*와 *pæs gewinnes*라는 두 개의 XP가 있는데, 이 두 요소가 모두 I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결과적으로 (5)에서 시제동사는 문장 중간의 굴절소 자리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문장 끝의 굴절소 자리에 있는 것이다. 즉 고대영어에서의 굴절소는 선택어순일 수도 있고 후핵어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분석을 이중 기제구조 가설(Double Base Hypothesis)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Pintzuk은 고대영어에서는 OV/VO 그리고 INFL VP/VP INFL의 두 가지 구조가 모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에서도 시제동사는 C가 아닌 문장 중간의 I로 이동을 하는 것이 되고, 또한 화제화이동도 CP의 지정어가 아닌 IP지정어 자리로의 이동이 된다. 이를 IV2분석, 즉 V가 I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분석이라고 부른다.

### 3. 굴절소 중간구조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Kemenade와 Pintzuk의 분석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는 주절의 V2구조를 CP영역으로의 이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IP영역으로의 이동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V2이동을 I로의 이동으로 분석하는 Pintzuk은 필연적으로 굴절소가 VP의 앞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고대영어에 선택어순의 굴절소가 있었느냐, 즉 문장의 중간에 굴절소가 있었느냐하는 점이다.

#### 3.1. V2구조와 인칭대명사 접어

Pintzuk의 IV2분석에 의하면, V2구조는 주절만의 현상이 아니고 종속절에서도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Icelandic이나 Yiddish 등 완전한 IV2언어와는 달리, 고대영어의 종속절에서는 소위 다리 동사(bridge verb) 구문이나 비인칭 구문 혹은 비인칭 수동문 등에서 여격 혹은 대격 경험주(experiencer) 등의 요소가 제한적으로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격주어만이 시제동사의 앞에 올 수 있다(Kemenade 1997b):

- (6) gif *ðam gifran* angemetlicu spræc ne eglde  
 =if *the greedy*(dat.) eloquent speech(nom.) not afflicted  
 'if the greedy are not afflicted by loquacity' (CP 309, 3)

이렇게 종속절에서 전형적인 V2어순이 불가능한 이유를 CV2분석은 분명히 예측한다. 종속절에서는 C의 자리가 이미 어휘 보문자에 의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V2분석에 따르면 종속절에서도 자유롭게 V2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이필환(1995, 1999)은 Pintzuk의 이중 기저구조 가설을 비판하면서 CV2분석을 옹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Pintzuk이 이중 기저구조 가설을 주장하면서 화제화이동과 V2이동을 IP지정어와 그 핵으로의 이동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7)에서 보듯이 주절에서 Wh-요소나 부정어 ne'not', 혹은 þa'then'와 같은 부사 등이 이동한 경우에는 V2어순이 유지되어 시제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에 오고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주어가 온다. 하지만 (8)에서처럼 그 외의 단순 화제화 요소가 이동을 한 경우에는 인칭대명사 주어가 시제동사의 앞에 위치하여 V2구조가 깨어진다. 즉 V3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sup>1)</sup>

- (7) a. Hwæt hæfst ðu  
 =What **have** you  
 'What do you have' (ÆCHom II.7.63.84)  
 b. Ne oncneow heo weres gemanan  
 =not **know** she man's society  
 'she didn't know the society of man' (ÆCHom I.2.42.9)  
 c. þa sende him god to micelne wind  
 =then **sent** them God to great wind  
 'then God sent them a great wind' (ÆCHom I.18.244.28)

1) Kemende(1997a: 299-303)에 의하면 이와 같은 어순 유형의 차이는 증세영어시기까지 계속 지속된다. 한편 주어가 인칭대명사 접어가 아닌 경우에는, (2)에서 보듯이, 이런 어순상의 대조가 없이 주어는 모두 두 번째 위치에 온다.

- (8) *Fela spella him sædon þa Beormas, ægþer ge of hiera agnum lande, ...*  
 =many stories *him* told the Permians both of their own country  
 'the Permians told him many stories, both about their own country' (*Oros* 14.27)

그렇기 때문에 (7)과 같은 일부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동사가 C까지 이동을 하는 CV2구조를 형성하지만, (8)과 같은 일반적인 화제화 구문은 IP로의 이동이라는 것이 Pintzuk의 가정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고대영어 인칭대명사는 접어인데, 이 접어는 IP의 지정어에 부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문제는 (8)의 경우에는 접어가 IP지정어 오른쪽에 부가되고(9b), (7)의 경우에는 IP지정어의 왼쪽에 부가되는 것으로 봐야하는데(9a), 동일한 인칭대명사 접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다른 두 위치에 부가된다고 보기 힘들다:

- (9) a. [<sub>CP</sub> þa [<sub>C</sub> sende [<sub>IP</sub> [*him*-god] [<sub>I'</sub> ... ]]]]  
 b. [<sub>IP</sub> [*Fela spella-him*] [<sub>I'</sub> sædon [<sub>VP</sub> ... ]]]

반면 Kemenade(1987)는 접어는 핵인 C(와 V, VP, P 등)에 부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7)과 (8)은 모두 CP영역으로의 이동이지만 (7)에서는 접어가 C(로 이동한 시제동사)의 오른쪽에 부가되었고(10a), (8)에서는 왼쪽에 부가된 것으로 분석한다(10b).

- (10) a. [<sub>CP</sub> þa [<sub>C</sub> sende-*him* [<sub>IP</sub> god [<sub>I'</sub> ... ]]]]  
 b. [<sub>CP</sub> *Fela spella* [<sub>C</sub> *him*-sædon [<sub>IP</sub> þa Beormas [<sub>I'</sub> ... ]]]]

(7)의 경우에는 Wh-요소, *ne*, *þa* 등이 연산자(operator)로서 굴절소와 동지표(co-index)를 이루어 결과적으로 이들 요소가 굴절소와 하나의 구성성분([þa+sende])이 되기 때문에, 접어가 그 사이에 끼여들 수 없어서 굴절소의 오른쪽에 부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Kemenade(1987: 139)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 역시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으며, þa과 같은 부사까지 연산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결국 (7)과 (8)의 대조에서

2) 고대영어 인칭대명사가 접어라는 주장은 Kemenade(1987)가 처음으로 했으며, 그 이후 Pintzuk(1991, 1996a), 이필환(1998, 1999 제7장) 등도 이를 따르고 있다.

드러나는 인칭대명사 접어의 위치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IV2분석이나 CV2 분석은 어느 쪽도 분명한 우열을 보이지 않는다.

### 3.2. 불변화사의 위치와 굴절소 중간구조

앞서 논의했듯이 인칭대명사 접어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Kemenade와 Pintzuk의 분석이 모두 말끔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영어에서도 굴절소가 문장의 중간에 위치하는 구조가 가능했다는 Pintzuk의 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첫째로, 다음에서 보면 불변화사(*particle*)가 주절에서는 물론 종속절에서도 시제동사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다:<sup>3)</sup>

- (11) þa **sticcode** him mon þa eagan *ut*  
 =then **stuck** him someone the eyes *out*  
 'then his eyes were gouged out' (Oros 90.14)
- (12) þæt he **ahof** *upp* þa earcan  
 =so-that he **lifted** *up* the chest  
 '...so that he lifted the chest up...' (GD(C) 42.6-7)

불변화사는 동사의 앞에 기저 생성되며 동사와 결합되어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사전에 기재된다([prt.+V]<sub>v</sub>).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동사와 분리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불변화사는 동사의 왼쪽에 붙어 있고, CV2분석에 따르면 종속절에서는 동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12)에서처럼 동사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불변화사는 불변화사 자체가 이동한 것이 된다. 물론 (11)에서와 같은 주절에서는 동사가 (C로) V2이동을 하기 때문에 불변화사는 뒤에 남게 된다. Kemenade(1987: 32)는 고대영어에서도 현대영어의 불변화사 이동규칙과 유사하게 불변화사가 수의적으로 동사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그 증거는, 다음 (13)에서 보듯이, 동사와 오른쪽으로 이동한 불변화사의 사이에 오는 요소는 목적어 NP뿐인 점이다:<sup>4)</sup>

3) 고대영어에서의 불변화사의 위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emenade(1987: 23-39) 및 Pintzuk(1991), 이필환(1996, 1999: 제6장)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4) 현대영어에서도 불변화사는 한 개의 NP만을 건널 수 있다:

(i) He *threw away* the sword at that instant.



- (13) *þæt he wearþ þæt sword onweg þæt he on handa hæfde*  
 =that he threw *the sword* away that he in hands had  
 '...that he threw away the sword that he had in his hands'  
 (Bede 38.20)

반면 Pintzuk은 불변화사는 이동을 하지 않으며 불변화사가 동사의 뒤에 나타나는 것은 불변화사가 동사의 뒤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동사가 불변화사의 앞으로, 즉 문장 중간의 I로 V2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불변화사가 이동하지 않는 것은 무거운 요소만이 후치되는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2)에서처럼 동사가 문장 끝의 굴절소 위치로 이동한 경우에는 불변화사가 동사 다음에 올 수 없게 된다. 실제로 Pintzuk이 제시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오는 경우에는 100% 불변화사가 동사의 앞에 온다. 즉 (11)-(12)에서처럼 불변화사가 동사의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는 주절이든 종속절이든 모두 동사가 문장의 중간으로 이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12)와 (13)과 같은 종속절에서도 굴절동사가 문장의 중간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이며, 따라서 문장의 중간에 선행어순의 굴절소가 있다는 것이다

인칭대명사와 단음절 부사의 위치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Pintzuk은 인칭대명사나 단음절의 부사도 불변화사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요소이므로 후치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요소들이 동사의 뒤에 나타나는 경우는 동사가 앞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듯이 동사가 문장 중간의 굴절소로 이동한 문장에서만 이들 요소들이 동사의 뒤에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4) *swa þæt hy asettan him upp on ænne sið*  
 '...so that they **transported themselves** inland in one journey...'  
 (Chron A 132.19 (1001))
- (15) *æt martinus come þa into þære byrig*  
 =that Martin **came then** into the town  
 '...that Martin then came into the town' (ÆLS 31.490-491)

지금까지 불변화사, 인칭대명사, 단음절 부사의 위치 등에 바탕을 둔 굴

(ii) He *threw* the sword *away* at that instant.

(iii)\*He *threw* the sword at that instant *away*.

절소 중간구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고대영어의 문장에서 굴절소가 문장의 중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3.3. 부정일치와 굴절소 중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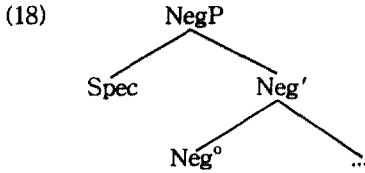
고대영어의 문장구조에서 선택어순의 굴절소를 가정해야하는 또 다른 증거는 Haerberli and Haegeman(1995, 1999)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정일치(negative concord)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고대영어의 문장부정은 일반적으로 시제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부정어 ne에 의해 표현된다:

- (16) *Ne sende se deofol ða fyr of heofenum, þeah þe hit ufan come*  
 =Not sent the devil the fire from heaven, though it from-above came  
 'The devil didn't send fire from heaven, though it came from above.' (AECHom I.6.13)

그런데 이 ne와 더불어 고대영어에는 다른 부정어가 같이 사용되는 다중부정(multiple negation)도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개의 부정어가 하나의 부정어처럼 문장 전체를 한번만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정일치라고 한다. 부정이 다른 부정을 취소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부정×부정=긍정”과 같은 논리적인 의미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고대영어는 이러한 부정일치언어였다:

- (17) *ne mæg nan mon soðre secgan*  
 =not can no man more truly speak  
 'Nobody can speak more truly.' (Bo 94.8)

부정문을 분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대 전체는 문장부정은 구조적으로 NegP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Pollock(1989) 이후 부정문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가정이며, 고대중세영어의 부정을 분석한 Haerberli(1991), Haerberli and Haegeman(1995, 1999) 등의 가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한다:

**(19) Sentential Negation Condition**

All sentential negators must be positioned in NegP and only NegP can express the sentential negation.

이 문장부정조건에 의하면 문장부정에 참여하는 부정어가 하나 이상인 이중 혹은 다중부정도 부정어는 모두 NegP속에 위치해야한다. 이 조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i) NegP는 하나의 문장(S)에 하나만 나타난다. ii) NegP의 핵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X°부정어는 한 문장에 한 개만 가능하지만, XP자리인 지정어 자리에는 부가(adjunction)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부정어가 겹쳐서 올 수도 있다.<sup>5)</sup> 이로 인해 부정일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건 (19)는 Haegeman(1995)이나 Haegeman and Zanuttini(1991)이 제안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부정기준(Neg Criterion)과 한편으로는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20) The Neg Criterion**

- a. Each Neg X° must be in a Spec-Head relation with a Negative operator.
- b. Each Negative operator must be in a Spec-Head relation with a Neg X°.

---

5) 부정 부사는 반복이 가능하지만 부정핵은 반복이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i) I'll *never, never* go there again.

(ii) \*I'll *not, not* go there again.

한편 부정 부사와 부정핵이 같이 오는 다음 구조는 현대영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고대중세영어에서는 가능했다:

(iii) \*I'll *never, not* go there again.

이 원리는 '부정핵은 반드시 부정연산자를 필요로 하며(그 역도 마찬가지), 그 양자는 지정어-핵 일치의 구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핵이 반드시 부정부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부정부사가 반드시 부정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즉 부정핵으로만 문장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부사만으로 문장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21) a. I *won't* make that mistake ever again.  
 b. We *didn't* say a word.
- (22) a. I will *never* make that mistake again.  
 b. We said *not* a word.

부정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위의 예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null) 부정핵이나 영 부정연산자가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문장부정 조건은 부정핵이든 부정부사이든 NegP속에 자리만 하면 문장부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2b)에서의 not는 형태상으로는 a word를 부정하는 국부 부정(local negation, constituent negation)어처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문장부정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한 마디가 아닌 여러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2b)는 (21b)와 의미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부정어 not a word는, 아마 LF에서, Neg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할 것이다. 문장부정조건은, 부정기준과 마찬가지로, S구조나 LF에서 만족이 되면 된다. 아마 LF에서 이동을 할 때는 not이 아닌 not a word전체가 이동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S구조에서의 이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X°요소가 LF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 (23) a. *Not a word* would he say.  
 b. *Not one bottle* did we leave behind.

현대영어에서의 문장부정은 부정핵이든 부정부사이든 하나의 부정어만으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부정핵과 부정부사의 존재를 모두 가정하는 (20)과 같은 부정기준은 이중부정이나 다중부정을 허용하는 부정일치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현대영어와 같은 비 부정일치어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원리가 된다. '부정핵이든 부정부사든 NegP속에 부정어가 있으면 문장부정의 의미가 도출이 되며, 또한 의미상 문장부정에 참여하는 부정어는 (S구조에서든

LF에서든) 반드시 NegP에 위치해야 한다'는 가정이면 충분하다.<sup>6)</sup> 반면 NegP밖의 부정어는 국부부정을 한다(예; *Not a single person would help me.*).

다중부정어가 부정일치를 이루려면 우리의 문장부정조건 (19)나 부정기준(20)과 같은 구조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문장부정에 참여하는 부정어는 모두 Neg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구 이동이 되거나 외치된 영역 속에 들어있는 부정어는 부정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4) *ưæt heora nan ne meahte [nanes wæpnes gewældan]*  
 =that of-them none not was-able no weapon wield  
 'that no one of them was able to wield a weapon'  
 (*Oros* 194.18)

(24)의 예문은 종속절이다. 이를 굴절소 중간구조로 본다면 시제동사가 이동한 것이고, *Kemenade*처럼 SOVI기저어순을 가정하면 동사 뒤의 요소들이 외치되거나 동사(구) 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Haerberli and Haegeman* (1995: 92-93, 1999: 106-109)가 주장하고 있듯이, 동사(구) 인상이 된 영역 속의 부정어는 부정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 *West Flemish*의 예를 살펴보자:

- (25) *dat er niemand geklaapt eet [over niets]*  
 =that there no one talked has about nothing  
 'that no one talked about nothing'

위의 예문에서 시제동사의 뒤에 있는 부정어는 문장부정어와 함께 하나의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정 의미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no one talked about anything*"의 의미가 아니다. 고대

---

6) 부정부사 중에는 원래는 부정의 뜻이 아니었지만 NegP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다보니 부정을 강조하는 부정부사화한 경우도 있다. 고대불어에 이러한 예가 있다. 원래는 양화사였던 요소가 NegP의 지정어가 되면서 부정부사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NegP속에 들어온 요소가 원래의 부정핵과 일종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부정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NegP속에 들어오는 요소는 모두 문장부정에 참여하게 되며, 역으로 문장부정에 참여하는 요소만이 NegP에 위치할 수 있다.

영어와 West Flemish의 부정일치와 관련된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는 문장의 구조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Haerberli and Haegeman의 주장이다. 결국 고대영어의 종속절에는, Kemenade(1987)의 분석과는 달리, West Flemish에서와 같은 동사(구) 인상을 가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편 Haerberli and Haegeman(1999: 111ff.)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은 없으며 모든 언어의 통사구조는 선택어순이다’는 Kayne(1994)의 주장을 받아들여, West Flemish에서조차 동사구 인상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고대영어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두 언어 모두 선택어순의 굴절소(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사구 인상이란 현상은 없다. 그런데 부정일치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West Flemish에서는 시제동사와 결합하는 문장부정어가 자리하는 NegP의에 부정사절 속에도 별도의 NegP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NegP가 별도로 존재하게 되면 각자가 별도의 부정 의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고대영어의 종속절에는 동사구 인상을 가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24)와 같은 종속절은 굴절소 중간구조에서 시제동사가 문장 중간의 굴절소 자리로 이동하여 도출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대영어의 (혹은 모든 언어의) 모든 문장을 선택어순의 구조에서 도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Roberts(1997)도 Kayne(1994)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대영어의 모든 문장을 선택어순 구조에서 도출하려고 한다. 자세하게 논의할 지면이 부족하지만 이런 가정에서는, 예를 들어 (1)과 같은 예문을 도출하기 위해 목적어나 부사 등의 요소들을 동사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이동 규칙(AGRoP의 지정어 자리로의 이동 등)을 가정해야 하고, 또한 비 시제동사가 시제동사의 왼쪽으로 이동한다고도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이동 현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모든 언어의 모든 문장이 선택어순이라는 Kayne(1994)의 주장은 생성문법 내부에서나 가능한 무리한 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고대영어에서는 선택어순의 굴절소가 후행어순의 굴절소와 함께 쓰였다고 가정한다. 즉 고대영어의 문장구조는 SOVI도 가능하고 SIVO도 가능하다. 즉 (24)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6) [C XP Aux<sub>i</sub> [YP V] t<sub>i</sub>]

결국 [ ] 안의 요소는 이동(동사구 인상)을 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부정일치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고대영어의 문장구조에도 선택어순의 굴절소를 가정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현상을 통해 느끼게 된다.

#### 4. 부정과 화제화이동

고대영어에 선행어순의 굴절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Kemanade의 CV2분석 대신 Pintzuk의 IV2분석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굴절동사가 문장 중간에 있는 굴절소의 위치로 이동한 것이라는 Pintzuk의 주장은, 앞서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제화이동을 IP지정어로의 이동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 화제화이동이 IP지정어 자리로의 이동이라면 주절에서는 물론 종속절에서도 V2현상이 자유롭게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고대영어는 굴절소 중간구조는 허용하지만, V2현상에 있어서는 독일어나 화란어 등과 마찬가지로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비 대칭성을 보인다. 즉 고대영어의 종속절에서는 (2)과 같은 V2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Pintzuk(1993: 20-21)은 종속절에서도 주어 외의 요소가 화제화이동을 하는 예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 (27) *ðam aðe þæt hine moton his mægias unsyhian*  
 =...the oath (by) which **him might** his relatives exculpate  
 '...the oath by which his relatives might absolve him...'  
 (*Law Ine* 98.13-15)

그러나 이런 예문은 극히 예외적이고 그 빈도도 무시할 만하다. 그리고 위의 예문에서 동사 앞의 목적어는 인칭대명사이므로 화제화이동이 아닌 접어이동으로 앞으로 이동해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는 종속절에서도 화제화이동과 V2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 (28) *Gregorius se trahtnere cwæð þæt forþi wolde drihten*  
*getrahtnian þurh hine sylfne þæt bigspel þe ...*  
 =Gregory the interpreter said that **therefore wanted** God  
 interpret himself the parable that ...  
 'Gregory the interpreter said that therefore God wanted to  
 interpret through himself the parable that ...'  
 (*ÆCHom* II 549.219)

그러나 (27)-(28)와 같이 종속절에서도 화제화이동이 가능한 (극히 제한된)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절 동사가 발화와 관계된 '다리 동사'이거나 비인칭 구문 등에 국한된다(Kemenade(1991, 1997b). 이런 구문은 CP-반복(CP-recurs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다리 동사'의 보문절은, 다음 구조에서 보듯이, CP가 반복이 되어 새로 생겨난 하위의 CP로 화제화이동과 V2이동이 되는 것이다:

(29) ... V [<sub>CP</sub> [<sub>C'</sub> þæt [<sub>CP</sub> forði [<sub>C'</sub> wolde [<sub>IP</sub> drihten ...]]]]]

그러나 이러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절에서는 V2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4)와 다음에서 보듯이 종속절에서는 굴절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위치에 오더라도 그 앞에 오는 XP요소는 항상 주어이다:

(30) þæt se winsele wiðhæfde heaþoderum  
 =that the wine-hall withstood brave-ones  
 '...that the wine-hall withstood the brave ones...' (Bo 771-772)

굴절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위치에 오는 것은 굴절동사가 문장 중간의 굴절소로 이동했기 때문이지만, 종속절에서는 화제화이동이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V2현상에 대한 주절과 종속절의 비 대칭성이 설명될 수 있다.

사실 V2현상은 두 개의 이동 현상으로 구성이 된다. 하나는 화제화 요소의 이동이고, 또 다른 이동은 시제동사의 이동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동은 상호 연결되어 같은 XP의 지정어와 핵 자리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왔다. 예를 들어 Kemenade(1997a, 1997b)는 다음과 같은 기능범주의 인허 조건을 제안한다:

- (31) a. The dominant functional head must be lexicalized.  
 b. Once the CP-level is activated, i.e. when there is an operator in SpecC', C must be lexicalized.

고대영어에서는 C가 지배적인 기능 범주이고, 따라서 C는 (보문자나 시제동사에 의해) 어휘화되어야 한다(31a). 그리고 일단 CP의 지정어 자리로의 화제화이동이 있으면 반드시 C도 따라서 어휘화되어야 한다(31b).



그러나 우리는 시제동사가 C로 이동하는 것은 (31b)와 같은 원리 즉 지정어-핵 일치 관계에 의한 이동이라기보다는 고대영어 등의 C가 가지고 있는 AGR자질의 점점을 위한 이동으로 본다.<sup>7)</sup> 이필환(1993)은 고대영어의 C에는 AGR자질 즉 AGRc(Complementizer Agreement)의 자질이 있고 이 AGRc는 AGRs나 AGRo와 마찬가지로 강 자질(strong feature)이어서 시제동사에 의한 점점을 받아야 하며, 이 것이 시제동사가 C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sup>8)</sup> 따라서 시제동사가 주절에서는 중간 굴절소에 이동을 한 후 다시 C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4)나 (30)와 같은 종속절에서는 AGRc가 종속 접속사에 의해 자질 점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제동사가 C까지 이동을 하지 않고 문장 중간의 굴절소에서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종속절에서 시제동사가 문장 중간의 굴절소까지 이동을 하는 것은 Pinztuk의 주장과는 달리 V2이동은 아니고, 단순히 시제동사가 굴절소와의 형태적 결합(혹은 점점)을 위해 이동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시제동사가 중간 굴절소 자리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 앞에 오는 요소는 주격주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IP지정어 자리는 화제화 요소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격주어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종속절에서 선택어순의 굴절소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V2현상은 여전히 주절에서만 관찰이 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분석은 Pinztuk과는 다르다. 우리의 분석은 중간 굴절소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그녀의 분석과 같지만, V2현상을 여전히 시제동사의 C로의 이동과 CP의 지정어 자리로의 화제화이동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

7) 생성문법의 이론적 발전에 따라 AGRs/AGRo/AGRc등의 용어는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  $\emptyset$ -자질 일치나 EPP 자질 점점 등의 개념으로 V2현상 등을 설명하면 되지만, 그러한 기술상의 차이는 본 논문의 논지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8) 보문자의 밑에 일치소가 기저 생성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해서(간접적으로) 입증이 된다. 일부 서부 게르만 어에서는 보문자가 시제동사와 (그리고 동시에 주어와) 일치 현상을 보이고, 이에 따른 굴절 어미가 보문자에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 (i) South Hollandic  
dat-(t)e ze kom-m(e)  
=that-pl. they come-pl.
- (ii) Luxemburgish  
Géi wuer-s de well-s  
=go where-2sg. you want-2sg.

이 때 굴절 보문자(inflected complementizer)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치에 관한 내용뿐이고 보문의 시제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다.

분석은 전형적인 V2현상이 주절에서만 나타나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고대영어는 IV2언어의 특성(종속절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CV2의 특성(주절에서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일종의 혼합된 구조의 언어가 된다.<sup>9)</sup> 다시 말해서 영어는 원래 독일어나 화란어와 같은 전형적인 CV2언어였지만 이미 고대영어시기에 굴절소 중간구조를 형성하여 SIVO인 현대영어로 가는 변화를 시작한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는 다시 영어의 어순과 그와 관련된 문장구조의 변화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Kemande(1987) 등은 서서히 늘어나던 SIVO문장에 영향을 받아 12세기 말경 영어 기저어순이 바뀐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Wurff(1997, 1999a, 1999b) 등에 의하면 SOVI어순은 중세영어를 넘어서 심지어는 초기현대영어시기인 16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이러한 SOVI어순은 SIVO어순과는 서로 다른 기능적인 (혹은 의미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도 영어의 기저어순 변화는 매우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 5. 부정과 굴절소 중간구조

고대영어에서 굴절소 중간구조가 가능하다고 본 분석으로는 Pintzuk외에도 Tomaselli(1991), Cardinaletti and Roberts(1991) 등도 있다. Tomaselli는 고대영어의 문장구조를, 굴절소는 선택어순이고 동사구는 후핵어순인 [<sub>IP</sub> [<sub>I'</sub> INFL [<sub>VP</sub> O V]]]의 구조로 파악하며 후핵어순 굴절소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1)과 같은 후핵어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시제동사의 굴절소로의 이동이 수의적이라고 가정한다. 시제동사가 이동을 안 하면 (1)과 같은 구조가 도출되고 이동을 하면 (2)나 (4)와 같은 구조가 도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사가 굴절소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형태적인 결합이나 자질 점검을 위한 것이므로 수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편 Cardinaletti and Roberts(1991)는 고대영어의 문장에는 TP와 NegP와 별도로 AGRP(즉 AGRsP)가 두 개있다고 가정한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AGR<sub>1</sub>P와 AGR<sub>2</sub>P가 있는데 AGR<sub>2</sub>P는 TP나 NegP처럼 후핵어순이지만 AGR<sub>1</sub>P는 선택어순이다. 그리고 선택어순인 AGR<sub>1</sub>P로 시제동사가 이동을 한다. AGR<sub>1</sub>P의 지정어 자리에는 주어가 와서 주격이 부여되고 AGR<sub>2</sub>P에는 일치 어미가 포

9) 사실 주절에서는 시제동사가 거의 항상 C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선택어순의 굴절소, 즉 문장의 중간에 오는 굴절소가 있는지 확인도 안되고, 또 그 위치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 시제동사의 착지점이 굴절소보다 상위의 C이기 때문이다.

함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AGRP가 두 개라는 가정은 그 근거가 미약하고, 또 같은 AGRP가 핵과 보충어 사이의 순서를 달리한다는 가정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1)에서처럼 시제동사가 문 말에 오면 AGR<sub>i</sub>P 역시 핵 후순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Tomaselli처럼 시제동사의 이동이 수의적이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어느 가정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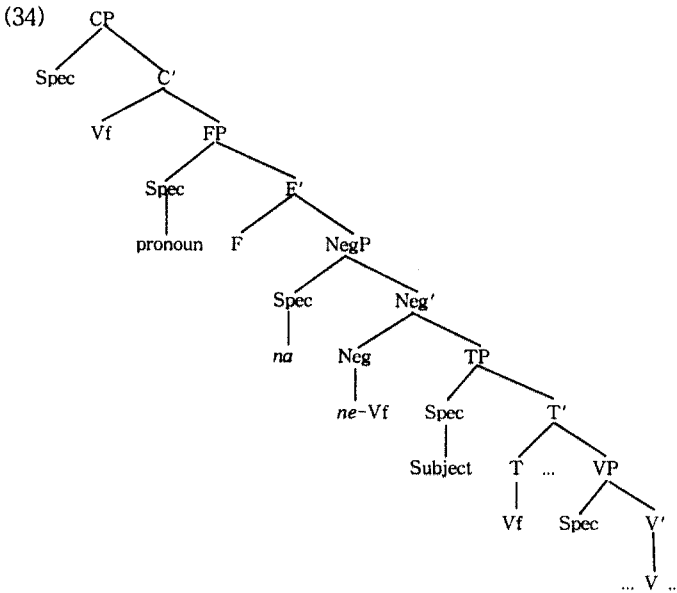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이론적 무리 때문에 Kemenade(1999, 2000)도 굴절소 중간구조를 수용한다. 즉 CV2분석을 포기하고 굴절소 중간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제동사가 문장 중간의 굴절소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런 이론상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부정과 관련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대영어의 문장부정은 ne에 의해 표현이 된다. 그러나 고대영어는 부정일치언어였기 때문에 ne외에 다른 문장부정어도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 (32) *Ne het he us na leornian heofonas to wyrcente*  
 =not ordered he us not learn heavens to make  
 'He did not bid us learn to make the heavens.' (ÆLS XVI.127)
- (33) *Ne bið na se leorningniht furðor þonne his lareow*  
 =Not-is not the apprentice further than his master  
 'the apprentice is not ahead of his master' (ÆHP XIII.154)

(32)(33)은 (24)와 마찬가지로 부정일치문이다. 즉 부정어가 여러 개 있어도 부정의 의미는 단일하게 한번만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적인 차이는 있다. 즉 (24)에서는 ne외의 다른 부정어는 형태상으로는 그 다음에 오는 구성성분을 수식하거나 그 구성성분과 결합이 되어있다. 다만 의미상으로는 문장부정에 참여할 뿐이다. 그러나 (32)(33)의 경우에는 ne와 더불어 na혹은 no도 의미적으로는 물론 형태·통사적으로도 문장부정어이다. 따라서 시제동사와 항상 인접해 나타나는 ne는 NegP의 핵이고 na'not, never'는 NegP의 지정어 자리에 오는 부정부사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ne는 이동하는 시제동사에 포함이 되어(incorporated) 동사와 같이 핵이동을 해서 앞으로 나가지만, na는 원래의 위치인 NegP의 지정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Hulk and Kemenade(1997: 190-93)나 Kemenade(1999: 151-52, 2000: 64-66), Fischer *et al*(2000: 306-7)은, 이 부정부사 na의 위치가 주어 가 인칭대명사이면 그 다음에 오고(32), 반면 주어가 일반명사구이면 그 앞

에 위치하는 특성이 있음을(33) 지적하고 있다. 또한 (32)에서 보면 주어 인칭대명사뿐만 아니라 목적어 대명사도 *na*의 앞에 올 수 있다. 이 때 만약 *na*가 NegP의 지정어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결국 인칭대명사(주어나 목적어 등 접어)의 위치와 (일반명사구) 주어의 기저위치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에서 Kemenade(1999: 158, 2000: 65)는 앞서 논의했던 굴절소 중간구조의 가능성을 수용한 후 고대영어의 문장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위의 구조에 의하면 일반명사구 주어는 TP의 지정어에 위치한다. 그러나 인칭대명사 접어는 FP의 지정어 자리로 다시 상승한다. 그리고 시제동사는 V에서 T를 거치며, 부정문에서는 Neg를 들른 후 *ne*와 포합이 된 다음 F까지 이동을 한다. 이제는 시제동사가 F까지 이동하는 것이 V2이동이 된다. (34)의 구조에 바탕을 둔 Kemenade의 분석은, 굴절소 중간구조를 수용해서, 앞서 살펴본 (7)과 (8)의 대조를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두 문장에서 접어의 위치는 동일하다. 대신 어순상의 차이는 시제동사가 F까지만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C까지 다시 상승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이다.

즉 (7)에서는 시제동사가 C까지 상승을 해서 인칭대명사 주어들을 앞서게 되었다. 반면 (8)에서의 시제동사는 F에 있고 인칭대명사는 FP의 지정어 자리에 있으며 그 앞의 요소는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온 화제화 요소이다. 그래서 접어의 부가 방향(C에 대한 왼쪽 부가인가 아니며 오른쪽 부가인가의 문제)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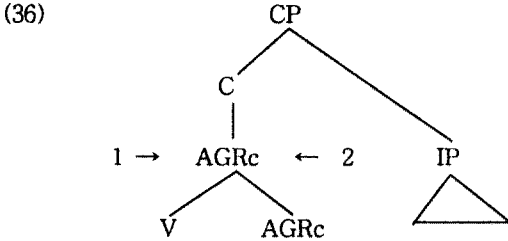
그러나 (34)의 문장구조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는 종속절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4)의 종속절에서도 시제동사는 F까지 이동을 한다. 그런데 종속절에서는 인칭대명사뿐만 아니라 일반명사구 주어도 FP의 지정어 자리에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종속절에서는 일반명사구 주어도 분명히 NegP를 앞서고 있는데, 그 위치는 FP뿐이기 때문이다:

- (35) þæt heora nan ne mehte nanes wæpnes gewældan  
 =that of-them none not was-able no weapon wield  
 'that no one of them was able to wield a weapon'  
 (Oros, 194.18)

Kemenade는 주절에서 나타나는 na를 전후한 인칭대명사와 일반명사구 주어의 위치 차이에만 주목을 하고 이를 별도의 위치를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종속절에서는 위의 예문이 보여주듯이 범주의 구분 없이 주어는 모두 NegP를 앞선 F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ne+V<sub>fin</sub>*]의 위치는 F아니면 Neg이다. 시제동사가 ne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T는 떠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명사구 주어는 그 앞에 온다. 이제 일반명사구 주어도 TP의 지정어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Kemenade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문장 중간에 굴절소를 받아들이지만 주로 주절에서만 발견이 되는 V2현상은 여전히 CP지정어 자리로의 화제화이동과 시제동사의 C로의 이동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굴절소 앞의 자리는 주격주어를 위한 자리이지, Pintzuk의 분석처럼 화제화 요소를 위한 자리도 아니고 Kemenade(1999, 2000)의 분석처럼 인칭대명사만을 위한 자리도 아니다. 굴절소 앞의 자리를 IP지정어로 보든 FP지정어로 보든 이 자리는 주격주어의 표면위치이다. 그렇다면 (32)(33)의 어순 상의 대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가? 우선 인칭대명사 접어의 표면위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Kemenade(1987)에서처럼 C로 이동한 시제동사에 부가되는 것으로 보거나

이필환(1993, 1995, 1999)에서처럼 C에 있는 AGRc에 부가되는 것으로 분석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인칭대명사만을 위한 별도의 XP(즉 Kemenade(1999, 2000)의 FP)를 설정할 이유가 없다. 만약 FP가 인칭대명사를 위한 자리라면 왜 이 자리가 중세영어 이후 주격주어를 위한 자리, 즉 AGRsP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반면 우리의 분석에서처럼 인칭대명사가 C에 있는 AGRc자리로 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중세영어 이후 영어의 굴절어미가 소실되면서 AGRc가 없어지거나 혹은 약 자질로 약화가 되면 당연히 인칭대명사가 이 자리로 이동하는 현상 또한 없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33)에서처럼 주격주어가 NegP의 밑, 즉 굴절소보다 하위의 위치인 TP의 지정어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듯이 보이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종속절인 (35)가 잘 보여주듯이 주격주어는 그 범주가 인칭대명사이든 일반명사구이든 NegP를 포함하여 굴절소를 앞서는 것이 SOV언어와 SVO언어에서 모두 기본 어순이다. 문제는 (33)의 경우가 고대영어에서 얼마나 일반적인고 전형적인 어순 유형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많고, 또한 na와 주격주어가 일종의 뒤섞기 규칙(scrambling)에 의해 그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Rissanen(1999)에 의하면 일반명사구 주어는 부정어(고대영어의 ne나 na, 그리고 중세 이후의 nat/not)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대영어, 중세영어, (초기)현대어에 이르기까지, 그 비율이 not을 뒤따르는 경우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33)과 같은 어순 유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예외도 많이 있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33)을 기본형으로 보기보다는 (35)와 같은 어순 유형을 기본으로 보아 주격주어는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는 NegP보다 앞선 자리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한

다.

## 6.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고대영어에서도 선택어순의 굴절소가 있었다. 둘째, 이러한 굴절소 중간구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화제화이동은 여전히 CP의 지정어 자리로의 이동이고 V2이동은 시제동사가 C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절에서는 V2구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접어도 C(속의 AGRC)로의 이동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굴절소 중간구조를 주장하는 Pintzuk이나 Kemanade의 분석과 본 논문의 차이가 있다.

### 참고문헌

- 이필환. (1992). 동사이동과 고대 영어의 어순. *영학논집* 16. 서울대학교 언어영문학과, pp. 115-37.
- 이필환. (1995). 고대영어의 기저 구조와 어순. *英語史* 창간호. 한국영어사학회, pp. 48-75.
- 이필환. (1996). 고대 중세영어의 불변화사에 관한 소고. *현대문법연구* 9, 현대문법학회, pp. 1-25.
- 이필환. (1998). 고대영어 인칭대명사의 접어이동. *英語史* 5, 한국영어사학회, pp. 55-92.
- 이필환. (1999). *영어 통시 통사론 - 어순과 동사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 Cardinaletti, A. and I. Roberts. (1991). *The Typology of Structural Deficiency*. Ms. University of Geneva.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pp. 1-52.
- Fischer, O, van Kemenade, A, Koopman, W. & W. van der Wurff (eds). 2000. *The Syntax of Early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eberli, E. (1991). *The Neg Criterion and Negative Concord*. Memoire de Licence, Universite de Geneve.

- Haerberli, E and L. Haegeman. (1995). Clause structure in Old English: evidence from Negative Concord. *Journal of Linguistics* 31, pp. 81-108.
- Haerberli, E and L. Haegeman. (1999). Negative Concord and Verb Projection Raising in Old English and West Flemish. In Tiekens-Boon van Ostade, eds. *Negation in the History of English*, pp. 101-119.
- Haegeman, L. (1995). *The Syntax of Neg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aegeman, L and R. Zanuttini. (1991). Negative Heads and the Neg Criterion. *The Linguistic Review* 8, pp. 232-252.
- Hulk, A. and A. van Kemenade. (1997). Negation as a reflex of clause structure. In Forget, D., Hirschbuehler, P., Martineau, F. and M.-L. Rivero. eds. *Negation and Polarity: Syntax and Semantics*. John Benjamins, Amsterdam and Philadelphia, pp. 183-207.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van Kemenade, A. (1987). *Syntactic Case and Morphological Case in the History of English*. Foris, Dordrecht.
- van Kemenade. (1991). Verbal Position in Old English: Evidential Problems. *Studia Anglica Posnaniensa* 24, pp. 81-94.
- van Kemenade, A. (1997a). Topics in Old and Middle English Negative Sentences. In Hickey R. and S. Puppel. eds. *Language History and Linguistics Modelling: A Festschrift for Jacek Fisiak on his 60th Birthday*. Mouton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pp. 293-306.
- van Kemenade, A. (1997b). V2 and embedded topicalization in Old and Middle English. In van Kemenade, A. & N. Vincent. eds. *Parameters of morphosyntac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326-52.
- van Kemenade, A. (1997c). Negative-initial Sentences in Old and Middle English. In *Festschrift for Roder Lass on his 60th Birthday*. *Studia Anglicana Posnaniensia* 31, pp. 91-104.
- van Kemenade, V. (1999). Sentential negation and clause structure in



- Old English. In Tiekens-Boon van Ostade, eds. *Negation in the History of English*, pp. 147-165.
- vam Kemande, A. (2000). Jespersen's Cycle revisited. In Pintzuk, S. Tsoulas, G. and A. Warner. eds. *Diachronic Syntax: Models and Mechanis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 51-74.
- Lee, Pil-Hwan. (1993). *A Diachronic Study on Word Order in English: The Minimalist Approach*.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intzuk, S. (1991). *Phrase Structures in Competition: Variation and Change in Old English Word Orde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intzuk, S. (1992). Phrase Structure Variation in Old English. Paper presented to the Second Diachronic Generative Syntax Workshop,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intzuk, S. (1993). Verb Seconding in Old English: Verb Movement to INFL. *The Linguistic Review* 10, pp. 5-35.
- Pintzuk, S. (1995). Variation and change in Old English clause structur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7, pp. 229-260.
- Pintzuk, S. (1996a). Cliticization in Old English. In Halpern, A. and M. Zwicky eds. *APPROACHING SECOND: Second Position Clitics and Related Phenomena*. CSLI Lecture Notes Number 61, CSLI Publications, Stanford
- Pintzuk, S. (1996b). Old English Verb-Complement Word Order and the Change from OV to VO. *York Papers in Linguistics* 17, pp. 241-264.
- Pintzuk, S. (1998). Post-verbal complements in Old English. In Hogg, R. and L. van Bergen eds. *Historical Linguistics 1995, Vol 2, Germanic*.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162.) John Benjamins, Amsterdam, pp. 233-246.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pp. 365-424.
- Rissanen, M. (1994). The position of *not* in Early Modern English questions. In Kastovsky, D. ed. *Studies in Early Modern English*. Mouton de Gruyter, Berlin, pp. 339-48.

- Rissanen, M. (1999). *Isn't it? or Is it not? On the order of postverbal subject and negative particle in the history of English*. In Tiekens-Boon van Ostade, eds. *Negation in the History of English*, pp. 189-205.
- Roberts, I. (1997). Directionality and word order change in the history of English. In van Kemenade, A. & N. Vincent, eds. *Parameters of morphosyntac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397-426.
- Roberts, I and A. Roussou. (1999). A formal approach to 'grammaticalization'. *Linguistics* 37, pp. 1011-41.
- Tomaselli, A. (1991). Cases of V-3 in Old High German. *Groninger Arbeiten zur Germanistischen Linguistik* 33, pp. 93-127.
- Wurff, Wim van der. (1997). Deriving Object-verb Order in Late Middle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3, pp. 485-509.
- Wurff, Wim van der. (1999a). Objects and Verbs in Modern Icelandic and Fifteenth-Century English: a Word Order Parallel and its Causes. *Lingua* 109, pp. 237-265.
- Wurff, Wim van der. (1999b). On expletive negation with adversative predicates in the history of English. In Tiekens-Boon van Ostade, eds. *Negation in the History of English*, pp. 295-327.

이필환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외국어문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3) 580-5093,  
e-mail: pilhwan@kmu.ac.kr

Received: 2002년 12월 27일

Accepted: 2003년 1월 29일